



24일 서울 강남구 CGV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버닝'제작보고회에서 배우 스티븐 연(왼쪽부터), 전종서, 유아인, 이창동 감독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창동 “‘버닝’은 관객에게 말을 거는 영화”

이창동 감독이 8년 만에 내놓는 영화 '버닝'이 다음달 국내 개봉과 칸 국제영화제 상영을 앞두고 베일을 벗었다.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CGV압구정에서 이창동 감독과 유아인, 스티븐 연, 전종서 등 주연 배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버닝' 제작보고회가 열렸다.

'버닝'은 각자 미스터리한 면모를 지닌 세 남녀 이야기다. 유통회사 아르바이트생 종수(유아인 분)는 배달하러 갔다가 어릴 적 같은 동네에 살던 해미(전종서)를 만난다. 종수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 해미에게 설레는 감정을 느끼고 그녀와 어울리기 시작한다.

해미는 누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고양이를 종수에게 맡기고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난다. 여행에서 돌아온 해미는 아프리카에서 만난 벤(스티븐 연)을 종수에게 소개한다.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고급 승용차를 모는 벤은 완벽한 삶을 사는 듯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인물이다.

어느 날 벤이 해미와 함께 종수 집으로 찾아와 자신의 비밀스러운 취미를 고백한다. 그때부터 종수는 무서운 예감에 사로잡힌다.

'버닝'은 이창동 감독 전작들에 비해 미스터리 요소가 강하다. 이 감독은 “(전작들과) 다른 방식으로 관객에게 말을 거는 영화여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스터리 스타일 장르로 카테고리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또

칸 영화제 초청 '버닝' 내달 17일 개봉
모두 같이 만들어가는 느낌으로 제작
유아인·스티븐 연·전종서 등 출연

는 이야기에 대한, 또는 영화 그 자체에 대한 미스터리로 확장할 수 있는 영화”라고 소개했다.

“젊은 청춘들에 관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현장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목표와 계획에 따라 만드는 게 아니고 영화 자체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가 같이 만들어가는 느낌을 함께 가지기를 바랐습니다.”

'버닝'은 무라카미 하루키 단편소설 '헛간을 태우다'를 원작으로 삼았다. 이창동 감독은 “기본적 이야기 줄기가 그동안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고민했던 문제들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었다”며 “이야기를 가져온 다음부터는 그것대로 독자적으로 두고 저는 제대로 영화적 고민과 함께 작업했다”고 말했다.

'버닝'은 그의 여섯 번째 연출작이자 처음으로 디지털 촬영 방식을 도입한 작품이다. 이창동 감독은 “어릴 때 필름 영화가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느낌이 영화를 좋아하게 된 큰 이유 중 하나였다”며 “막상 디지털로 작업해보니 영화가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즉흥성을 디지털이 훨씬 많

이 가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고 말했다.

영화는 제71회 칸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유아인은 '베데람' 이후 3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하며 처음 칸 레드카펫을 밟게 됐다. 스티븐 연은 지난해 봉준호 감독과 함께 한 '옥자'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오디션으로 선발된 전종서는 생애 첫 영화로 국제무대에 선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이창동 감독에게 경의를 표했다.

“시나리오가 나오기 전부터 감독님과 작업 자체에 의지를 갖고 함께 하고 싶다는 표현을 했어요. 작업을 하면서는 더더욱 '내가 이래서 같이 하고 싶었구나' 했죠. 아주 어릴 때부터 이창동 감독님 작품을 보았습니다. 그 이름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유아인)

“봉준호 감독님이 전화하셔서 '이창동 감독님이 부르신다'며 얼른 전화하라고 하셨어요. 저도 이창동 감독님 영화 너무 좋아하고 같이 일하는 건 영광이죠. 꿈에도 감독님과 일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스티븐 연)

“선택받은 입장이니까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촬영했어요. 프랑스는 평소에도 가보고 싶었던 나라였는데 영화를 통해 갈 수 있게 돼서 감독님께 감사드려요.” (전종서)

이창동 감독은 “칸영화제는 우리 영화를 알리고 평가받는 데 가장 효과적인 자리”라며 “배우들에게도 좋은 기회와 경험일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버닝'은 칸영화제 기간인 다음달 17일 국내 개봉한다.

“옛사람들의 효 의미 되새겨요”

광주국악방송 내달 3일 공개방송

광주국악방송은 5월을 맞아 우리 옛사람들의 효 의식을 판소리 '심정가' 눈 대목을 통해 함께 나누며 이 시대의 효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공개방송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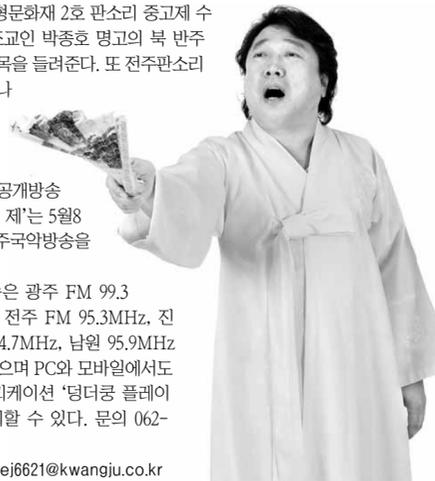
이번 광주국악방송 무돌길 산책 공개방송은 '어버이 살아 실 제'라는 제목으로 5월3일 오후 1시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이날 공개방송에는 남원시립국악단 총예술감독 이난호, 전남도립국악단 창작부 지도위원 박춘맹(사진),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정가 이수자 박지운, 남원시립국악단 수석단원 임현빈 등이 출연하며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2호 판소리 중고제 수궁가 전수교육조교인 박종호 명고의 북 반주에 심정가 눈 대목을 들려준다. 또 전주판소리 합창단은 신명나는 남도민요 연곡을 선사한다.

무돌길 산책 공개방송 '어버이 살아 실 제'는 5월8일 오후 6시 광주국악방송을 통해 방송된다.

광주국악방송은 광주 FM 99.3MHz를 비롯해 전주 FM 95.3MHz, 진도·목포·해남 94.7MHz, 남원 95.9MHz에서 들을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에서도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딤더콩 플레이 어'를 통해 청취할 수 있다. 문의 062-602-9300.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김경란, 결혼 3년 만에 파경

김상민 전 의원과 올 초 합의 이혼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경란(40)이 바른미래당 김상민(44) 전 의원과 결혼한 지 3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김경란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김경란과 김 전 의원이 올 초 한 달여 간 숙려기간을 거친 후 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경란과 김 전 의원은 2015년 1월 결혼했다.

김경란은 2001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해 2012년까지 다양한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프리랜서 선언 후에는 tvN '더 지니어스' 등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나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낙선했다. 이후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TV 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억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국민의 얼굴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템즈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비록(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추리의 여왕 시즌2(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데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열린채널	00 속보이든TV 인사이드(재)	30 TV속의 TV	55 닥터 365
2	40 역사저널 그날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30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50 판다랑	00 뉴스브리핑
3	10 다큐 공감(재)	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유치원	30 뽀뽀뽀 모두가 놀자 스페셜 30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40 2018 지방선거 정당정책연설 (자유한국당)	00 여유만만	55 뉴스콘서트	00 SBS 스페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스토에이지 15 영동발달공순이와 친구들 4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50 익스트림 스프라이즈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아라 55 지식 통조림
7	00 KBS 뉴스 7 35 공감다큐, 사람	50 인형의 집	15 전생애 왠스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00 집중인터뷰 이사람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살피하는 남자들	55 하하랜드 2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UHD 송터	00 슈츠	00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00 스위치-세상을 바꿔라
11	00 KBS 뉴스 15 2018 남북평화 협력기원 평양공연 우리는 하나	10 추적 60분	10 2018 남북평화 협력기원 평양공연 우리는 하나	2018 남북 평화 협력기원 평양 합동 공연 <우리는 하나>
12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장애인 날 기획 세상의 모든 다크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갈의 역사 3부 천하통일의 꿈 일본도>	09:30 물랑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들나물 사과샐러드와 들나물 비빔국수>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30 띠띠뽀 띠띠뽀(재) 07:45 뽀뽀뽀 뽀로로 08:00 뽀뽀뽀 유치원 1~2 08: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8:45 띠띠뽀 뽀우 09:00 독막맨 09:15 얼마 개투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초대석 13:00 지식채널e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3:4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재) 14:30 너티츠 15:00 호기심 쇼터 노트.
15:15 파프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레전드이어로 삼국전 <출주는 사이프리카 3부 가나, 왜 도 가나>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주 16:30 띠띠뽀 뽀우(재) 16:45 뽀뽀뽀 유치원1~2(재) 17:15 얼마 개투리(재) 17:30 두다다콩 17:45 뽀뽀뽀 뽀로로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4 19:00 몬카토(재)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화산섬의 비밀 19:30 EBS 뉴스
19:50 아빠타 20:40 세계테마기행 <출주는 사이프리카 3부 가나, 왜 도 가나>	21:30 한국기행 <잔치기행 3부 일 속에 잔치 열려라> 21:50 EBS 다크프린트 <예술, 할까?> 22:45 극한직업 <반짝반짝 빛나는! -극공속과 자개장 재가공> 23:55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24:45 지식채널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5일(음 3월 10일 丁亥)

子	36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48년생 추후에 왔던 비와 정반대의 환경에 놓인다. 60년생 과정에 충실하다 보면 대박 나게 되어 있다. 72년생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보자. 84년생 낙후는 것이 최상책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04, 46	午	42년생 뜬구름 잡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 54년생 자꾸 빗나간 형태를 피르모 다시 한 번 점검 해보아 한다. 66년생 처음부터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78년생 생산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형상이다. 90년생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57, 01
丑	37년생 주체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라. 49년생 특징을 파악해야 처리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61년생 냉철하고 고강한 판단력이 강한 추진력을 갖게 하라. 73년생 실제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85년생 잡초가 있는 편이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38, 79	未	43년생 평시에 가져 왔던 의문이 풀리리라. 55년생 일거양득의 효과가 크다. 67년생 부수적인 것에 얽매어서 주된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다. 79년생 지나치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 91년생 파스한 행운의 햇살이 포근히 감싸고 있다. 행운의 숫자 : 36, 50
寅	38년생 되돌아본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50년생 발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이었다. 62년생 현재의 정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74년생 반복적인 점검과 관심만이 위함을 최소화 할 수 있다. 86년생 사소한 습관을 주의하라. 행운의 숫자 : 26, 58	申	44년생 시기를 놓친다면 대박이 불가능하다. 56년생 작은 것은 내버려두고 자연히 해결되리라. 68년생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80년생 결과가 모든 과정을 정당화 시킬 것이다. 92년생 가볍게 넘겨도 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22, 88
卯	39년생 상징적인 면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51년생 미련을 버리는 것이 낫다. 63년생 뜬 구름 잡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 75년생 평상시에 공을 들여 놓는다면 실제에서 유용해진다. 87년생 이타적 조치가 곧 자신을 이롭게 함이니라. 행운의 숫자 : 39, 60	酉	45년생 사소한 것에서부터 단박이 될 것이다. 57년생 중추적인 것은 자신이 직접 실행한 것과는 무관하므로 안심해도 된다. 69년생 안중에도 접어들었다. 81년생 정리정돈하기에 좋은 날이다. 93년생 처자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7, 19
辰	40년생 경험자나 전문가와 함께하자. 52년생 지금 잘 관리해 둔다면 향후의 효용성을 높인다. 64년생 원상으로 복귀하게 되어 있다. 76년생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대응이 달라진다. 88년생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도 괜찮으리라. 행운의 숫자 : 41, 91	戌	34년생 하자가 보인다. 46년생 지나치다보면 미칠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58년생 단처럼 잘 잡아낸다면 진전을 보리라. 70년생 쉽게 속을 수도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자. 82년생 꺾이지는 듯한 날따라지 앞에 서 있는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78, 57
巳	41년생 작용역까지 인식하자. 53년생 천천히 실행되어야만 무리가 따르지 않으리라. 65년생 균형과 실리가 주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77년생 통념과 상식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 89년생 함께하면 시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31, 18	亥	35년생 조짐이 보이면 진행 방향을 수정해도 좋다. 47년생 적극적으로 임하다 보면 행운을 잡게 된다. 59년생 문제가 해결되는 성국이니라. 71년생 평소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임에 반한다. 83년생 결정적인 시기에 거의 압박했다. 행운의 숫자 : 29, 9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